

‘창작 열정’



재불화가 홍일화 작 '별늬'



고미야 작 '소녀-꽃이 되어'

지역도 거리도 이들을 말리지 못했다

연말이 눈앞이다. 여전히 많은 전시가 개막했다가 폐막했다가를 반복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연말 전후 작가의 이력과 독창적 화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가 눈에 띈다.

영남에서 대학을 나오고 호남에서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공부한 화가의 전시에서부터 보통 거리가 아닌데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어 주목된다.

고미야 작가와 홍일화 작가가 주인공으로, 이들 전시는 각박한 연말, 무더진 감성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들 전시를 정리, 소개한다.

먼저 고미야 작가는 지역 화단에 서 독특한 케이스다. 영남과 호남의 회화를 숙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흥 출신이지만 형제들이 대구에 머물고 있어 진학했던 영남대와 동 대학원을 거쳐 다시 광주로 돌아와 조선대 대학원에 석사 학위과정을 수료했다. 개인전 역

영·호남 넘나들며 미술공부 고미야 개인전 ‘호점몽’ 주제로 31일까지 광주예당 갤러리

한·불 오가며 활동 재불작가 홍일화 개인전 내달 30일까지 아천미술관…치유메시지 전파

시 경상도와 전라도를 오가며 내차레 열었고, 학부 시절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대학원 박사과정 때 한국화 전공으로 바꿨다. 서양화와 한국화에 대한 이해가 모두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육아까지 감당하며 창작에 전념, 분주한 창작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고미야 작가가 다섯번째 개인전을 지난 5일 개막. 오는 31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이하 광주예당) 갤러리에서 ‘호점몽’(胡蝶夢)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광주예당 전시지원 공모전시의 하나로 마련돼 전시를 열고 있는 작가는 유려한 필선과 부드러운 색채로 인물을 표현해온 가운데 오랜 시간 인체를 탐구해왔다.

이번 개인전에서 전통 공필화 특유의 깊이 있는 선묘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회화 작품 3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재된 감정과 자아의 흔적을 담은 진솔한 인물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은은한 색과 정교한 세필로 그려진 작가의 인물화는 사색의 공간 속에서 미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다. 작품 속 소녀들은 작가 내면의 자화상이자, 어릴 적 이상을 실현해 줄 존재로, 그들의 고요한 표정과 차분한 눈빛에는 성장의 아픔과 삶의 상흔이 스며 있다. 동시에 그 너머로 나아가려는 회복의 의지와 온전함을 향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풀이다. 더욱이 섬세하게 인물의 표정까지 놓치지 않은 작가는 소녀의 순수한 감성과 따스한 색채를 더해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한편, 화면 속에서 꽃과 나비의 형상으로 확장시킨다. 꽃은 성장과 희망을, 나비는 자유와 변화, 영혼을 각각 상징한다고 밝힌다.

여기다 작가는 그 상징들을 통해 자유로이 날아오르기 위한 깊은 염원을 담아내는 한편, 은은한 색과 정교한 세필로 그려진 인물들은 사색의 공간 속에서 미묘한 감정을 풀어낸다. 작가의 작품은 마치 꿈결처

럼 여운이 흐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넘어 다시 피어나는 인간의 내면을 마주하게 된다는 반응이다.

오랜 동안 숲에 전착해온 재불화가 홍일화 작가는 프랑스 에콜 데 보자르 Ecole des Beaux-Arts를 졸업하고 국립고등예술종합학 석사를 마친 뒤 2006년부터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20년째 국제적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홍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10일 개막. 2026년 1월 30일까지 영암 아천미술관 기획전으로 진행 중이다. ‘여전히 숲은 말하고 있다’라는 타이틀로 진행 중인 이번 전시에서 생태적 사유와 치유·회복의 메시지를 한층 더 심화시킨 작가는 그동안 펼쳐온 자연이 지닌 생명성과 감각적 충위를 회화·미디어·문학의 여러 장르에 걸쳐 탐구해온 연작선상위에서 작품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 감성과 영암의 자연이 만나는 전시에서는 150호 5점 연작시리즈를 망라해

대작 회화까지 만날 수 있다. 작가는 프랑스와 한국, 룩셈부르크,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개인전 50여회와 다수 단체전을 지속적으로 열어왔으며, 그의 작품은 암스테르담 반 고흐 아트 파운데이션 등 해외 기관에 소장돼 국제적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파리 재불작가 소나무협회 등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3월에는 개인전 ‘가야의 숲’전을 서울 갤러리마리에서 연 바 있다. 또 EBS ‘서양미술기행’과 ‘세계테마기행’의 방송 진행을 통해 대중과 예술을 잇는 감성적 시선을 전해왔으며, 영화 ‘리얼’의 배경 그림 참여, 제주 아르떼 뮤지엄의 미디어아트 상영, KCC와 아트 클럽바레이션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협업 작업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예코 판타지 소설 ‘빛이 숨을 쉴 때’를 출간하며 상상력을 문학의 영역으로 확장했다. 그의 작업은 시각예술과 서사를 넘나들며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신호”를 직관적으로 포착하고 그것을 회복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데에 그의 예술적 깊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이선희 작 '커피드로잉'



김영준 작 'Life is short'

«싸비노 작 'warm wishes'»

넛 작품들과 인기 도넛 카페 ‘노티드넛’의 상징 ‘슈가베어’를 제작한 이슬아 작가의 몽글몽글한 회화, 손그림의 감성을 옮긴 김영준 작가의 예뻐이션. 빵을 담은 그릇마저 먹음직스럽게 구워낸 요일 공방의 도자기, 나만의 커피를 찾아 전국의 카페를 답사하며 기록한 이선희 작가의 커피 드로잉까지 각기 다른 매체를 이용해 제작한 작품들은 다양한 빵과 커피만큼이나 다채로운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또 선명한 색감의 박모레 작가, 부드러운 질감의 해진 작가, 물감의 질감이 살아있는 김예지 작가, 아기자기한 매력의 루나양 작가, 디지털 일러스트의 매력을 선보이는 싸비노 작가가 각기 다른 레시피로 완성한 회화까지 신세계제과점이 정성스레 준비한 메뉴를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중 김재용 작가의 포토존이 설치되고, 광주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싸비노 작가가 지역 카페·베이커리와 협력해 제작한 특별 일러스트가 공개되는 등 연계프로그램이 진행,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준다.

백지홍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관람객들이 쟁반 가득 빵을 담은 마음으로 전시를 감상하면 좋겠다.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찾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풍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명품 발라더 디셈버 DK ‘단독 콘서트’ 열린다

내년 1월 10일 조선대 해오름관

그들 디셈버(December)의 DK가 내년 1월 10일 오후 6시 광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갖는다.

“TIMELESS”라는 타이틀로 열릴 이번 무대는 전국 투어로 마련된다. 광주는 DK가 꾸준히 사랑받아온 도시인 만큼, 팬들의 기대감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명품 발라더’로 불리는 DK는 이번 공연에서 넓은 음역대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대표곡부터 새롭게 재해석한 편곡 무대까지 들려줄 예정이다

무대에서는 ‘이미 아름다운 그대’를 비롯해 ‘부탁’, ‘안녕을 바라는 마음’ 등 히트곡은 물론,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화제의 곡 ‘가만히 눈을 감고’가 울려 퍼질 전망이다.

DK는 “광주 팬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특별하다”며 “한 곡 한 곡은 마음을 담아 노래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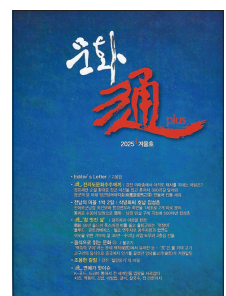
공연 관계자는 “무대를 직접 본 팬들은 DK의 라이브가 음원보다 더 감동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광주 공연 역시 깊은 울림을 전하는 명품 콘서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하면 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문화통’ 겨울호 발간…K푸드 이야기 등 다채

광주문화발전소(이사장 지형원)가 펴내는 ‘문화통’ 겨울호가 나왔다. 통권 57호로 발간된 이번 호에서는 에디터레터 ‘고분방’을 시작으로 전라도 문화수상제가 ‘강진 의마총에서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까닭’에 대해 풀어냈으며, 장기시리즈 ‘전남의 마을 1박 2일’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최후와 임란의 총절 청백리 최홍원 등을 배출한 사녕최씨를 집중 취재했다.

차령 50년의 울드카 폭스바겐 비틀을 몰고 출퇴근하는 ‘맛쟁이’ 광주치과 이상열 원장의 멋진 삶을 들여다봤으며 음식으로 읽는 문화에서는 ‘불고기’의 유래를, 전라도 밥상에서는 민어와 청계를 넣



어 장을 담구는 어육간장을 추천, 취재했다.

이밖에도 꿈나루 편에서는 오페라 ‘무동동동’에서 구두닦이역을 했던 살레시오조 5

학년 최민우 양을 만났으며 연애가 핫 이슈로 K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차진과 떡볶이, 김밥, 비빔밥, 갈비, 칼국수, 커피라면 등의 K푸드 이야기, 조영현 칼럼 ‘강진 칠량옹기의 비밀’ 등 읽을거리가 풍부하다. 정재경 기자